

무디스, SK 장기신용등급 Ba1으로 상향조정

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SK의 장기 신용등급을 Ba2에서 Ba1으로 한단계 상향조정했으며 등급 전망은 <긍정적>이라고 7월20일 발표했다.

무디스의 등급분류 체계에서 Ba1은 투자 부적격 등급 중 가장 높다.

무디스는 정유 및 석유화학 시장이 살아나면서 SK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점을 등급 상향조정의 이유로 가장 먼저 지목했다.

SK가 이전의 취약했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점 또한 등급조정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5/07/22>